

## 退溪學團의 讀書論\*\*

李 鍾 虎\*

### • 目 次 •

- |                     |                          |
|---------------------|--------------------------|
| I. 들어가는 말           | III. 무슨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
| II. 왜 선비는 책을 읽어야 하나 | IV. 退溪學團의 책읽기가 오늘에 주는 의미 |

### I. 들어가는 말

학봉 김성일이 1590년(庚寅) 통신부사(通信副使)로 일본에 갔을 때 왜승 종진(宗陳)이 『대명일통지 大明一統志』에 기재된 우리 나라의 연혁과 풍속에 대해 물은 적이 있다. 학봉은 이에 대해 조목마다 친절하게 각주해 가며 설명해 주었다. 그의 설명이 『학봉집』에는 「조선국연혁고이 朝鮮國沿革考異」라는 제하의 글로 실려 있다. 그 가운데 한 대목을 소개하는 것으로써 논의의 단서를 삼아 볼까 한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문자(文字)를 알아 책읽기(讀書)를 좋아할 뿐 아니라 국가가 인재를 만드는 방법이 어느 곳이든 이르지 않음이 없다. 안으로는 대학관(太學館; 成均館)과 사부학(四部學)이 있고 밖으로는 각 읍의 향교(鄕校)가 있으며 또한 서원(書院)과 학당(學堂)이 있어 왕공·대부의 자제 및 백성 중에 준수한 자들을 뽑아서 『소학』·『대학』과 같은 책으로 가르쳐 사친경장(事親敬長)하고 수기치인(修己治人)하는

\* 안동대 한문학과 교수

\*\* 퇴계학연구원, 『퇴계학보』 제80호(1993) 게재논문

도리를 알게 한다. 조금 성장해서는 사서(四書)·육경(六經)·제자백가(諸子百家)를 송습(誦習)하지 않음이 없다. 학문은 전적으로 성리(性理)를 위주로 하고 치심(治心)을 급무로 삼는다. 심성(心性)을 다스리지 않고서 한갓 독서·작문(作文)만을 일삼는 것을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선비들의 습상(習尙)이 이와 같기 때문에 공자·맹자의 학문이 늘 밝혀지고 삼강오상(三綱五常)의 도리가 크게 행하여 졌으며 예악문물(禮樂文物)이 찬연하고 지극히 갖추어져 중국과 다름이 없다.

인용문에서 우리는 16세기 조선 유교문화에 대한 학봉의 자신감과 자부심을 엿볼 수 있다. 『대명일통지』에는 다만 “풍속이 문자를 알아 독서를 좋아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학봉은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조선의 현실을 설명한 것이다. 특히 ‘독서’의 내용과 그 결과 양상을 선명하게 개괄해 놓고 있다. ‘문자’란 중국의 문자인 한자를 말한다. 따라서 독서의 대상은 한문으로 기록된 중국의 도서일 것이다. 『대명일통지』의 기록은 다분히 자국문화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제국주의적 시각에서 본 주변부 조선의 책읽기에 대한 평가이다. 그런데 학봉은 조선의 책읽기가 빚어낸 문화양상이 결코 중국의 그것에 밀리지 않는다는 믿음을 보였다. 비록 외국, 즉 중국이라는 대국의 문화라 할지라도 그것이 갖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면, 학봉의 믿음이 몰주체적인 사대주의적 발상의 결과로는 볼 수 없다. 실상 16세기 동아시아의 고급문화는 여전히 중국에서 발생·전파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유교문화는 곧 당시 조선 사대부들의 세계인식 아래에서는 지고지선하고도 이상적인 세계문화로 간주될 수 밖에 없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학봉의 이같은 언표가 있던 시기는 바로 임란이 일어나기 2년 전의 일로 이는 이조 개국 이래 200여년 동안 발전한 유교문화의 극성을 표징한다. 또 한편으로는 퇴계 이황의 성리연구가 그의 사후 문도들에 의해 학내외적으로 완벽하게 계승되고 있다는 징표이기도 하다. 비록 그것이 문약으로 흘러 조만간 왜침을 가능케 한 폐단을 노정하기는 했음

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학문의 고귀한 전통을 이토록 단순한 논리로 매도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고귀한 전통은 하루 아침에 성립되는 것이 아니어서 수많은 학인들의 지적 에너지를 누대에 걸쳐 온축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선인들의 저같은 자부심이 갖는 의미와 그 원천이 무엇이었던가에 대한 후인들의 이해가 보다 깊어져 보인다. 하나의 학문분야, 성리학에 관해 이토록 밀도있게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는 것은 세계학술사상 흔치 않은 일로 오늘의 우리에게도 훌륭한 학문 전통으로 계승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 선인들의 학문전통에 대한 무비판적인 추종도 문제가 있거니와 비판을 위한 비판도 무의미한 것이다. 철저한 이해가 밑바침된 비판과 계승이 소중하다. 즉 우리의 학문이 어디에서 연원하며 어디로 향해 가야 하는가 하는 자각된 물음이 제기되는 현재적 관점에서 선인들의 학문전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학문방향은 전근대성의 극복과 근대성의 성취라는 명제 속에서 서구편향을 지양하지 못한 감이 있다. 도란 극에 이르면 다시 되돌아 오는 법이라는 노자의 말이 연상된다. 문화가치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사상된 채 서구를 쫓아서 ‘앞서 가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 선인들의 학문전통을 투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퇴영이 아닌 보다 선진한 ‘뒤돌아 보기’는 때에 따라서는 편향을 극복하고 주체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선인들의 학문전통을 투명하게 인식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들의 독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독서(讀書)란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하나의 문장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낱말이 될 수도 있다. 독립한 문장으로써 ‘독서’는 일반적 주어인 ‘내’가 생략된 경우로 동사와 목적어가 결합된 형태로 보면 된다. 문장으로서의 ‘독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독’의 목적어인 ‘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다. 전후 문맥에 따라서는 ‘서’가 편지(書簡)라면 “편지를 읽는다”로 해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유가경전의 하나인 상서(尙書; 書經)를 지칭할 경우도 있다. 그러나 상서를 포함하는 책(書籍) 일반을 뜻하는 예가 대

부분이다. 그 밖에도 단순히 글(文章一般)을 뜻할 수도 있으니, 이 글에서는 편지·서경·책일반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서’가 쓰이고 있음을 밝혀 둔다. 따라서 낱말(명사)로서의 독서는 우리말의 ‘책읽기’, 혹은 ‘글읽기’에 해당한다.

16세기 현실에서 새로운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유일한 도구는 아마도 책 뿐이었을 것이다. 붓으로 쓴 책이 아니면 판으로 박은 책속에서 어제와 오늘의 총체적 정보를 읽어 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정보향유 방식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그들의 책읽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6세기의 현실은 기존의 정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운 정보라 하더라도 그것이 수용자에게 전달되고 향유되는 데는 계층과 지역에 따른 심각한 편차가 상존하던 시대였다. 이렇듯 제한된 정보량은 그 정보의 내용이 일단 완결된 형태를 띠고 있을 때, 이를 압도할 새로운 정보체계의 출현이 없는 한 동일체계 내에서 자기분열을 계속하면서 생명력을 유지해 나가려는 노력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아마도 이러한 움직임은 유통속도가 완만했던 시대에 있을 수 있던, 새로운 정보에 대한 호기심 보다는 두려움이 빚어낸 결과로 보인다.

우리는 완결된 형태로써 16세기에 존재했던 이론 내지 정보체계를 대표하는 것으로 ‘주자학’, 혹은 성리학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비록 11~12세기 중국 송대에 와서 마련된 것이었지만 16세기의 이조학자들에게는 여전히 중요한 관심거리로 남아 있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론적인 면에서 이조 국가체제의 성립기반을 성리학에 두고 이를 통치이념화 했다는 점이 주요한 이유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자학이 지니고 있는 이론체계의 방대함과 완전성이 이조의 학자들을 매료시켰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특히 퇴계 이황은 앞선 시대에 활동한 선배 학자들이 추구한 정보수용방식, 즉 부분적이고도 불완전한 주자학 이해에 불만을 느껴 보다 총체적이며 전문적인 수용방식을 택하였

다. 다시 말하면 ‘이조의 주자’가 되고자 염원했던 것이다. 퇴계 이후 이조의 학자들이 주자학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동일체계 내에서 지리한 자기분열을 계속하지 않을 수 없던 것도 부분적으로는 퇴계의 거의 완전한 가까울 만큼의 주자수용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퇴계는 주자학이라는 나무의 전체를 보려했고, 마침내 보았으며, 이를 육화하는데 힘썼다.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물과 거름을 더한 사람 중의 하나였다. 그리하여 그 나무는 튼튼한 뿌리와 가지로 자라나 큰 그늘을 드리우게 되어 한 동안 많은 이들이 즐겨 그 곳을 찾게 되었다.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우람한 나무를 잘라 없애고 그 곳에 다른 수종을 심자고 소리치지 못했다. 간혹 사상의 변절자가 나타나 목청을 돋우려 했지만 정통 주자주의자들의 함성에 쉽게 함몰되어 버리기 일쑤였다. 정통론자들은 거대한 주자학 나무숲에 시야가 가리워져 있었기에 다른 수종을 찾아나서기가 용이하지 못했을 것이다. 달리 말하면 주자학이 야말로 자신들의 지적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최선의 정보체계일 것이라는 신념이 강하게 작용한 탓일 게다.

이조 성리학자들의 지리한 자기분열은 하나의 운동으로서 긍정적인 측면을 생산해 낸 바 있다. 즉 ‘이기설’에서 보듯이 논리학상 변증법적 사유역량을 제고시켜 중국에서의 그것 보다도 정치한 이론체계를 형성하였음을 부인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질적이거나 새롭게 형성된 정보체계에 대해서 대담하게 대화하거나 포용하려는 노력에 인색했다. 즉 양명학이라든지 서양의 근대과학이 낳은 성과를 수용하는 데는 적지 않은 장애를 초래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 결과 계곡(谿谷) 장유(張維)가 지적한 대로, 퇴계 사후 1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이조의 학문풍토는 주자학 일색으로 변화되고 말았던 것이다. 주자학이 비록 중국 고대의 원시유가들의 사상체계를 계승하면서 각 역사시기에 출현한 새로운 사조(불교와 도교)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새로운 논리체계로서 그 탁월성을 인정받고는 있으나 완결을 본 뒤에는 닫혀진 정보체제로 안주해 버렸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는 아마

도 주자학의 속성이면서 아울러 그 한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정보(지식)가 새로운 정보를 잉태하기 위해 자기분열을 거듭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질적인 정보와도 끊임없는 대화가 이어져야 비로소 그 정보가 생명력을 획득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이조의 주자학은 날이 갈수록 독선을 고집한 채 전혀 다른 정보와 소통을 거부하였다. 심지어는 신성(神聖)을 부여받아 절대화된 권력으로 존재할 위험성마저 보여주기까지 했다. 사상의 독재자로 군림하는 거대한 정보체계로서의 주자학은 이조 17~8세기 이후로 정치현실에 편승하여 역기능을 점차로 노정하게 되지만, 16세기의 주자학은 여전히 새로운 정보체계로서 기능하면서 많은 학자들의 지식욕을 자극하고 있었다.

우리가 이 글에서 살피고자 하는 16세기 퇴계학단의 책읽기는 바로 주자학이라는 새로운 정보체계를 수용하는 방식과 연관되어 있다. 그만큼 책읽기에 대한 논의는 광범하면서 복합적인 의미망을 이미 담보하고 있는 셈이다. 누가 무슨 책을 어떻게 읽는가 하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한 시대의 지성사를 가늠해 보는 열쇠가 될 수 있다. 동일한 책을 읽는다 해도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읽는 이의 수용방식이 늘 동일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누가 더 정확하게 읽었는가 하는 문제는 남지만 읽어 주는 이가 있는 한 그 책은 살아 숨쉬는 생명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를 고전이라 부르고 있거니와 지성사는 고전의 해석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줄 안다. 이제 16세기 퇴계학단의 책읽기를 통해 그 시대의 지성을 엿보고 아울러 그들의 책읽기가 오늘날의 그것에 어떠한 문제를 제기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 II. 왜 선비는 책을 읽어야 하나

먼저 사회적인 측면에서 왜 선비들이 책을 읽지 않으면 안되었는가에 대해 언급하기로 한다. 이조시대의 사회구성원은 사·농·공·상으로

대별된다. 그 중에서 사계층(士階層)의 주된 사업은 책을 읽는 일이었다. 선비라는 우리말은 독서인을 지칭하며, 독서의 방향이 유학(儒學)을 주장하면 유자(儒者)로 표현된다. 선인들의 문집에서 종종 ‘사(士)’와 ‘유(儒)’가 동의어로 사용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연암 박지원은 그의 「양반전」에서 “독서하면 선비(士)라 하고 정사에 나아가면 대부(大夫)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왕실을 제외한 이조 지배층은 사대부인데, 그 사대부가 처사층과 관인층으로 대별된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대부가 독서와 무관하다는 것은 아니다. 대부가 되는 길은 바로 독서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비가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는 간단히 그것이 선비의 본업이기 때문이라고 답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음을 16세기 이조인들에게 던졌을 때 그들의 답변은 좀 달랐을 것 같다. 왜냐하면 독서를 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없다면 독서의 의미가 공허해지기 때문이다. 그들은 벼슬아치가 되어 그에 따르는 봉록과 명예가 독서의 보상으로 주어질 것이라 확신하였다. 그리하여 독서해서 과거를 통해 관인이 되는 예정된 길을 숙명처럼 받아 들였던 것이다. 예정된 길을 순탄하게 걸어가 대부가 되면 그만이지니와 만일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예컨대 처사의 길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출처(出處)의 문제에서 출에 실패했거나 스스로 이를 거부한 이가 바로 처사이다. 넓은 의미의 처사는 관료군에서 축출된 재야(在野)인사까지 포괄할 수 있다. 재야인사는 기득권을 상실한 계층으로서 본디부터 출에 실패한 인사들과는 조금은 구별된다. 독서가 처사층과 재야인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그의 자제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청족(淸族)으로 있을 때는 비록 글을 잘 하지 못해도 혼인할 수 있고 군역도 면할 수 있지만 폐족(廢族)으로서 글까지 못한다면 어찌 되겠는가? 글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지 모르나 배우지 않고 예절을 모른다면 새나 짐승과 하등 다를 바 있겠느냐?”라 하고, 또 “폐

죽으로서 잘 처신하는 방법은 오직 독서하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고 말한 바 있다. 청죽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계층이라면 폐족은 이를 상실한 계층이다. 다산이 강진으로 유배왔기에 스스로를 폐족이라 칭한 것이다. 그런데 다산은 폐족이 되었다 해서 독서를 그만 두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아무리 출세의 길이 봉쇄된 망한 집안의 자손이라 하여도 금수가 아닌 인간으로 살아가자면 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산은 오히려 폐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독서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몰락한 양반이라도 독서를 통해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학자가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독서는 이와 같이 선비들의 삶을 가능케 해주고 선비를 선비답게 하는 대방편이었던 것이다.

학문적인 측면에서 주자의 견해를 빌어 독서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천하의 이치는 요묘정미(要妙精微)하여 각기 마땅한 바가 있어 고금을 통하여 옮기거나 바꾸어낼 수 없다. 오직 옛 성인들만이 능히 이를 다 할 수 있었으니 행한 바(所行)와 말한 바(所言)는 천하 후세에 바꾸어 낼 수 없는 대법(大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 나머지 가운데서 이(대법)를 따르는 자는 군자가 되어 길(吉)하고 이를 어기는 자는 소인이 되어 흉(凶)하다. 길한 것이 큰 자는 능히 사해를 보존하여 가히 범도가 될 수 있고 흉하기 심한 자는 그 몸을 보존할 수 없으니 가히 경계할 만하다. 이에 그 찬연한 자취와 필연한 효험이 경훈사책(經訓史冊)에 갖추어져 있지 않음이 없으니, 천하의 이치를 궁구하고자 하면서 이에 나아가서 구하지 않는다면 이는 바로 담벼락을 마주하고서 서 있는 것과 같을 뿐이다. 이것이 궁리(窮理)가 반드시 독서(讀書)에 달려 있다는 까닭이다.(安鼎福, 『下學指南』, ‘讀書’조에서 재인용)

주자는 불변하는 ‘천하의 이치’가 존재한다는 믿음 아래에서 옛 성인들의 말과 행동에 주목했다. 그리고 옛 성인들만이 그같은 ‘천하의 이치’를 인지하고 체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천하의 이치는 성인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만 전해질 수 있다. 또한 성인의 말씀과 행



동에 따를 것이냐의 여부를 가지고 군자와 소인을 나누어 군자의 길을 가도록 권면하고 있다. 이는 『주역』 「대축」괘에 “하늘이 산 가운데 있는 것이 대축(大畜)이다. 군자는 (이 괘상을 보고) 그로써 옛사람의 말과 과거의 행적(前言往行)을 많이 고찰하고 참고하여 자신의 덕을 쌓는다.”고 한 말과 일치한다. 즉 군자의 덕이란 바로 옛 성인들의 말씀과 행동을 살펴 아는 지혜에 다름이 아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혜가 고스란히 보존된 것이 ‘경훈사책’이라고 했다. ‘경훈사책’은 ‘전언왕행’을 기록한 서책을 말한다. 그래서 주자는 천하의 이치를 궁구하는 일(窮理)은 경훈사책의 연구(讀書)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이로 보아 독서는 궁리의 문제와 직접적인 계기관계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선비가 왜 독서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물음에 대해 주자의 견해를 빌어 답해 보았다. 주자는 한마디로 독서는 궁리를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으로 보았다. 퇴계나 그의 문도들의 입장도 주자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백담 구봉령은 「求觀聖人之道必自孟子始」(『백담집』 권9)란 글에서 “성인의 도(聖人之道)를 어찌 쉽게 볼 수 있겠는가? (중략) 대개 도란 하늘에 근원하여 사람의 마음에 붙어 있는 것(道原於天而寓於人心)이니 사람이 이 마음을 함께 하고 마음이 이 도를 함께 하면, 성인의 마음(聖人之心)이 곧 나의 마음이요 성인의 도가 곧 나의 도이다. 그런 즉 성인의 마음을 장차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반드시 성현의 글(聖賢之書)에서 볼 것이니, ‘글(書)이란 성인의 도를 싣는 도구’이다.”고 했다. 백담의 주장은 이른바 ‘문이제도(文以載道)’와 같은 재도론(載道論)으로 본 독서관이라 할 만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퇴계는 ‘구도(求道)’의 방편으로 독서의 긴요함을 역설한 바 있다. 「책문 策問」(『증보퇴계전서』 제2책)에 보면, “도가 행해지지 못함은 도가 밝아지지 못한 까닭이다.”라고 하여 도를 밝히기 위해서는 『육경』·『사서』를 읽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중국은) 원나라 명나라 이래로 선비가 글로 인하여 도를 들은(因書聞道) 자가 즐

비하게 있었다.”고 하면서 우리 나라는 동방의 예의지국이면서도 “오히려 도학을 강명(講明)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도 모를 뿐 아니라 또한 꺼리고, 꺼릴 뿐 아니라 또 노하여 성현의 글보기를 과거를 보아 녹을 취하는 자료로 삼는데(決科取祿之資) 지나지 않는다.”고 탄식하였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한편 “글을 통하여 도를 구하고(因書以求道) 이를 널리 밝혀 크게 행함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하고 묻고 있다. 이와 같이 퇴계는 출세를 위한 도구로서의 독서를 경계하는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그는 오히려 ‘위기지학(爲己之學)’을 위해 소용되는 독서가 소망스러웠던 것이다. ‘위기지학’이란 무엇인가? 문자 그대로 ‘나를 위하는 학문’이다. 독서와 관련지워 말한다면, 읽는 주체의 인간됨을 위해 책이 필요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퇴계는 위기지학과 위인지학(爲人之學)의 차이점을 풀이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위인지학’이란 도리(道理)를 우리들이 마땅히 알아야(當知) 할 것으로 삼고 덕행(德行)을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當行) 것으로 삼아 먼 곳 보다는 가까운 것에서 곁보다는 속부터 공부를 시작하여(近裏著工) 마음으로 얻어 몸으로 실천하기를 기약하는 것이다. ‘위인지학’은 마음으로 얻어 몸으로 실천하기를 힘쓰지 않고 거짓을 꾸미고 바깥을 따라(飾虛循外) 이름을 구하고 칭찬을 취하는 것이다.(『언행록』, ‘교인’조, 김부륵록)

이로 보면 독서를 ‘과거를 보아 녹을 취하는 자료로 삼는’것은 위기지학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글을 통하여 도를 구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위기지학이 될 수 있다. 『논어』 첫머리에서 공자가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는다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라 한 말이 바로 위기지학을 하는 이의 마음가짐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한다. 퇴계의 이같은 태도는 결국 그가 전대의 학자 문인과는 다른 학문관과 독서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보

면, 학봉이 「실기 實記」에서 “요새 세상의 사대부들은 책을 읽으면(讀書) 오직 과거에 오르는 이익만을 알고 성현의 학문이 있는 줄은 몰랐으며, 벼슬을 살면 오직 임금의 사랑이나 녹을 먹는 영화만을 알고 깨끗한 절개가 있는 줄은 몰라서, 그저 호리명탕하게 염치도 의리도 없었다. 그러나 선생이 한 번 일어나자 사대부 된 사람도 비로소 ‘사람이 되는 도리(爲人之道)’가 저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줄을 알아서 가끔 선생의 태도를 듣고 흥기하는 일이 있었다.”고 한 지적은 문제의 핵심을 찌른 말이다.

간재 이덕홍이 “이(理)라는 것은 형이상(形而上)의 도리이니 생물의 근본이다.”라는 말의 뜻을 물은 데 대해 퇴계는 이렇게 답한 바 있다.

학문의 길은 차례를 뛰어 넘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공자의 문하에서도 안자·증자 이상이 아니면 성(性)이나 천도(天道)에 대해서는 얻어 들지 못했고, 주·장·정·주(周張程朱)의 때에 이르러서야, 성인이 나지 않고 우리의 도가 밝아지지 못해 만일 자세히 말해 두지 않으면 도학은 거의 끊어지게 될 것 같으므로, 말을 만들고 글을 지어(立言著書) 뒷사람에게 가르친 것이다. 학자들은 ‘그 책을 읽고 그 뜻을 얻으면(讀其書得其義)’ 마땅히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言行錄」, ‘教人’, 李德弘錄)

퇴계는 형이상학으로서의 ‘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주돈이·장재·정이·주희 등의 저서를 연구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인용문에서 ‘그 책’이란 곧 송대 성리학자들의 저서를 가리킨다. 앞서 주자가 말한 성인들의 경훈사책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풀어 놓은 것이 성리학자들의 글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퇴계는 주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리서 강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주자나 퇴계는 통속적인 방향에서 독서의 필요성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성경현전(聖經賢傳), 즉 경전중심으로 ‘사람되는 도리’를 구하고 실천하기 위한 독서를 강조했다. 따라서 이같은 지평 위에서 퇴계학단의 독서법이 강구되어 갔을 것으로 본다.

### Ⅲ. 무슨 책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

퇴계학단의 책읽기를 담론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그들이 택한 책의 종류와 성격 그리고 독서의 자세와 방법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그들 역시 많은 종류의 책을 섭렵했을 것으로 보인다. 백담 구봉령이 그의 자제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같은 정황을 알아 낼 수 있다. 백담은 크게 보아 세 가지로 독서의 대상을 잡고 있다. 첫째는 과거공부를 위한 책이다. 예를 들면 『고문진보 古文眞寶』나 『통감 通鑑』 등과 같이 문장력을 길러 작문에 효험을 줄 수 있는 책들이 그것이다. 두번째 위기지학을 위한 책인데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사서 四書』와 이를 해석한 주자의 글들이 포함된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일상생활 속에서 긴요하게 쓰일 수 있는 책들을 들고 있는데 각종의 의서(醫書) 류와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퇴계도 역시 위와 같은 세 가지 방면에 두루 걸치는 폭넓은 독서를 했음이 분명하다. 그는 “유가(儒家)의 뜻은 스스로 특별한 것이다. 문예를 힘쓰는 것만도 ‘유(儒)’가 아니고 과거를 보아 급제하는 것만도 ‘유’가 아니다.”(「언행록」, 정사성록)라고 하여, 문장학이나 과거학에 몰들지 말고 위기지학에 충실하라고 누누히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역시 학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생활인이었다. 그 시대가 요구하는 보편적인 독서경향을 외면할 수 없는 처지였다. 『고문진보』와 관련해서 그의 문도들의 문집에서 퇴계의 해설이 집중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만 보아도 그 같은 사정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특히 유명한 시인이나 문장가들의 시작품과 고문, 혹은 역사서에 등한히 하지 않은 것은 그러한 것들이 사대부의 교양을 표지하는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류의 책들을 통속적인 교양물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퇴계는 군자다운 선비를 지향한 분이다. 따라서 통속교양에 머무른 독서에 치중하지 않았고 진일보하여 위기지학을 위한 독서에 보다 치력했다. 따라서 자연 그의 독서방향은 『사서』·『오경』과 성리서에 편중되는 경향

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그가 어떠한 책을 중시했는지 알아 본다.

### 3-1. 무엇을 읽을 것인가

3-1-1. 사실 세상의 모든 책은 읽혀지기 위해 쓰여진다. 그렇다고 다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 점에서 퇴계는 꼭 읽어야 할 책, 읽어도 될 책, 그리고 읽어서는 안될 책으로 나누어 책읽기를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꼭 읽어야 할 책이란 이른바 필독서를 의미하는 바, 의리(義理)를 담은 성현의 글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리를 다룬 책이라고 해서 모두가 진선진미한 것은 아니므로 정주의 학설을 위주로 해야 한다고 했다. 예컨대 고봉 기대승은 설문청(薛文淸)의 『독서록』이 “의론에 또한 흠집이 없을 수 없으니 학자들이 고견(考見)의 자료로 삼는 것이 좋다. 근래 학자들은 정주의 글을 심상하게 생각하고 새로 나온 책(新出之書)을 보기 좋아 하니, 이 또한 해되는 것이 많다.”(『高峰集』 「論思錄」)고 하여 새로운 성리설에 무조건 현혹되지 말라고 했다.

읽어도 될 책이란 필독서보다 중요도가 덜한 책을 말한다고 보겠는데 문장학이나 과거학에 필요한 책을 지칭한다. 특히 서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반경전을 읽는다는 전제하에 역사서, 제자서, 문집 등을 읽어도 된다고 하였다.(『伊山院規』) 고봉 기대승도 역사서는 흥망치란의 사적을 살피기 위해 읽을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경서(經書)는 심오하고 난해하지만 사기(史記)는 사적이 분명하여 사람들이 경서를 싫어하고 사기를 좋아한다.”(『고봉집』 「논사록」)고 하여 잡박(雜博)한 역사서 보다 정미한 경서에 치력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퇴계도 구도를 위해서는 오로지 문장을 위한 책만을 읽기에 골몰해서는 안된다(『언행록』 ‘독서’, 김부륵)고 말한 바 있다.

반면에 읽어서는 안될 책은 필독서와 배치되는 내용을 가졌거나 진실이 담기지 않은 책으로 독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종류의 책을 지칭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소설류와 같은 “사특하고 음탕한 글”(『伊山院

規)이라든지 『가어 家語』·『설원 說苑』과 같은 잡서, 그리고 노장이나 불교계통 등의 이단서적을 거론할 수 있겠다.

13경 중의 하나인 『좌전 左傳』에 대해서도 퇴계는 “다 믿을 수 없다”고 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거니와 진실을 담지 않은 책에 대해서는 그의 현실주의 정신이 용납하지 않았다. 예컨대 “『사서』 이외에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것은 전국 때의 간인(姦人) 가운데 기탄없는 자가 가탁하여 스스로 제 마음대로 한 것과 진한(秦漢) 때의 곡사(曲士) 가운데 의리에 어두운 자가 전해 들은 것을 가지고 서로 과장한 데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말이 아주 믿을 수 없는 것이 많다. 비록 『좌전』과 『사기』와 『예기』에 기재된 바와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러한데, 하물며 『가어』나 『설원』 등의 잡서(雜書)에 있어서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문집 권12, 「與朴澤之」)”라 한 대목이 이를 잘 말해 준다. 이와 관련하여 다산 정약용은 『도산사숙록 陶山私淑錄』에서 퇴계가 이처럼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 엄격히 배척했음을 놀라와 하면서 당시 독서계의 소설 선호경향을 비판한 바 있다. 소설은 다분히 가공적인 세계를 그리고 있거니와 퇴계는 그러한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에 있었다.

고봉 기대승의 「논사록」을 보면, 그 역시 군왕에게 진강하면서 퇴계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당시로서는 중국의 명대(明代) 연의류를 비롯한 많은 소설들이 국내에 유입되어 널리 배포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전등신화』·『태평광기』·『초한연의』·『삼국지연의』 등과 같은 책들이 그것이다. 고봉은 이에 대해, 박잡무익(駁雜無益)할 뿐 아니라 의리(義理)에 매우 해롭고, 족히 사람의 심지(心志)를 잘못 되게 하는 악서(惡書)라고 비판하였다. 소설류와 더불어, 퇴계학단의 선비들은 이단적인 글에 대해 배척을 엄히 하였다. 퇴계가 율곡에게 보낸 편지와 월천 조목과 서애 유성룡 사이에 문답한 편지에서 불교서적을 보아서 안된다는 대목이 보인다. 퇴계가 노장이나 불교류의 책을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을 리 없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라도 아마 “마음 속으로 범범

하게 보고서 널리 배우는 데 밑바탕을 삼는(沈觀以資博) 선에서 그쳐야 했다. 이단서에 중독이 되어서는 안되었다. 왜냐하면 “이단의 학문(異學)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쉬우니 매우 두려워할 만”(『증보퇴계전서』 제1책, 「답남시보」)하기 때문이다.

이제 퇴계학단의 선비들이 가장 치열하게 읽었던 책들이 무엇이었던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 3-1-2. 선비의 독서는 『사서』에 근본해야 한다.

퇴계는 “성학(聖學)은 『사서』에 지나지 않으니 학문에 뜻을 둔 선비라면 이 책을 버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언행록」, 「논과거지폐」, 김성일록)라 했으며, 간재 이덕홍이 처음으로 학문에 뜻을 두어 『계몽 啓蒙』을 배우고자 했을 때 “우선 『사서』를 읽어라, 이것은 그리 급한 것이 아니다.”(「언행록」, 김성일록) 하였다. 또한 서애 유성룡도 “『사서』는 유자(儒者)의 부고(府庫)이니 반드시 외워야 한다.”(『서애집』 권12, 「寄子衿」)고 하여 『사서』가 유자의 필독서임을 말하고 있다. 물론 『사서』이외에도 『오경』을 읽으라고 했으나 기본은 『사서』에 두고 있다.

### 3-1-3. 『심경 心經』을 신명과 같이 믿어라

퇴계는 성리학에 관계된 많은 글에 대해 읽을 것을 권면한 바 있거니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성리서는 『심경』(宋 眞德秀編)과 『소학』·『주자서』이다. 이는 전대 성리학자들과 퇴계를 구별해 주는 중요한 표지이기도 하다. 독서공간의 변화는 자연 사상의 변화를 일정하게 규제하기 때문이다.

특히 『심경』에 대한 퇴계의 관심은 남다른 면이 있다. 퇴계는 ‘인욕을 막고 천리를 보존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글을 『심경』으로 보고 위기지학의 요체로 삼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소학』과 『근사록』·『심경』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긴요한가 라는 물음에 “『소학』은 체와 용을 함께 갖추었고, 『근사록』은 의리의 정미한 것이 비록 상세하나 학

자들을 깨우치고 감동시켜 분발하게 하는 것이 부족한 듯하다. 초학자가 처음 시작하는 데는 『심경』보다 적실한 것이 없다.”(『언행록』 ‘독서’, 김수록)고 답한 바 있다. 심지어는 “나는 평생에 이 책을 믿기를 신명과 같이 알았고 이 책을 공경하기를 엄한 아버지와 같이 하였다.”(『언행록』, 이덕홍록)고 고백하기까지 했다.

『심경부주』(明 程敏政編)는 그 주석이 모두 정주(程朱)의 어록이어서 해독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는데, 퇴계가 여러 달 앉아서 연구한 끝에 통하지 않는 곳이 없었다(『언행록』, 이덕홍록)고 했으니, 『심경부주』에 대한 퇴계의 자득공부는 마치 고려말 우탁이 정자의 『역전』을 깨친 것(『고려사』 「열전」)에 비할 만한 대단한 진전이었던 것이다. 때문에 우암 송시열이 “한훤당은 『소학』을 존송했고, 정암은 『근사록』을 높였으며, 퇴계는 『심경』을, 율곡은 『사서』를, 사계는 『소학』과 『가례』를 각각 높였다.”(우암 송시열의 『송자대전』, 宋秉珣의 『學問三要』에서 재인용)고 말한 것이 아닌가 한다.

#### 3-1-4. 『소학』은 학문의 기초이다

『소학』은 초기 사림과 지식인들이 애독해 오던 책으로 퇴계와 그 문도들 역시 중시하였다. 퇴계는 “남을 가르칠 때 반드시 『소학』으로써 먼저 하고, 그 다음 『대학』에 미치며, 그 다음 『심경』에 미치고, 그 다음 『논어』·『맹자』에 미치고, 그 다음 『주서』에 미치고 나서 제경에 미쳤다.”(『언행록』 ‘교인’, 이덕홍록)고 했듯이 『사서』·『오경』에 우선하는 필독서였던 것이다. 또한 퇴계는 『소학』과 『대학』을 건축에 비유하여 비교하기를 “『소학』은 그 터를 닦고 재목을 준비하는 것이요, 『대학』은 큰 집 천만 간을 그 터에 얹어 짓는 것”이라 하고 “『논어』·『맹자』·『중용』이나 『시』·『서』 등의 여러 글도 그 마땅히 대학의 규모에 들어가 그 꾸밈이 되는 것”(『언행록』)이라 한 바 있다. 그러므로 늘 기초가 되는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하나의 독서단계로만 『소학』의 위상을 말한 것이 아니라 평생의 수신서로서의 성격을 강



조한 것이다. 이는 뒤에 고봉 기대승이 진강할 때 거듭 강조되고 있음(「논사록」)을 본다.

### 3-1-5. 학문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주서 朱書』를 읽어라

퇴계는 『심경』에 못지 않게 주자의 저서에 애착을 보였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이상으로 여긴 성리학자가 다름 아닌 주자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노년에 들어와 오로지 『주서』에 뜻을 두었으니 한평생에 그가 득력한 곳은 대개 이 책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었다.(「언행록」 ‘독서’, 김성일록) 주자 서간문 연구의 결과로 엮어진 『주서절요』는 주자학 연구에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퇴계의 학문과 독서를 특징지우는 중요한 실마리가 되고 있다. 그는 “사람이 이 책(『주서』)을 읽을 수 있으면 학문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이요, 그 방법을 알고 나면 반드시 느끼게 되어 흥이 일어 날 것이다. 여기서 공부를 시작하여 오랫동안 익숙한 뒤에 『사서』를 다시 보면 성현의 말씀이 마디마디 맛이 있어 비로소 자기에게 쓰이는 바가 있게 될 것이다.”(「언행록」 ‘독서’, 김성일록)라 하여, 『주서』를 문장이나 과거에 물든 이들을 의리학의 세계로 인도하는 방편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 3-2. 어떻게 읽을 것인가

### 3-2-1. 어떤 것이 잘된 독서(善讀書)인가?

선생의 집에 『주자서』 사본 한 질이 있었는데, 매우 오래 된 것으로 글자의 획이 거의 마멸되었으니 이는 선생이 읽어 그렇게 된 것이다. 그 뒤에 사람들이 『주자서』를 많이 박아내자 선생은 새 책을 얻을 때마다 반드시 그 책을 교정하면서 다시 한 번 익숙하게 읽으므로(溫習) 장마다 융회하고 구마다 난숙하여졌다. 그것을 (몸과 마음에) 수용(受用)함은 마치 직접 손으로 잡고 발로 밟으며,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듯 하였다. 그러므로 일상 생활 속에서 말하고 침묵하며 동하고 정하며(語默動靜), 사양하고 받으며 취하고 주며(辭受取予), 나아가 베풀하고 물러

나 집에 있고(出處進退) 하는 데 있어서, 이 책의 글에 들어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혹 남이 의심나고 어려운 곳을 질문하는 일이 있으면 선생은 반드시 이 책에 의거해서 대답하되 또한 사정(事情)과 도의(道義)에 합당하지 않음이 없었다. 이것은 모두 자기가 실지로 알고 실지로 믿어 마음과 정신으로 융회(心融神會)한 결과로 한갓 책에만 의지해서 귀로만 듣고 입으로만 말하는 무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생 같은 이는 가히 독서를 잘 한 분이라(善讀書) 이를 수 있을 것이다.(『언행록』, ‘독서’, 김성일록)

위의 인용으로부터 우리는 퇴계학단의 선비들이 어떤 것을 좋은 독서로 생각했는가를 알아 낼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책의 내용을 신뢰해서 마음과 정신으로 융회관통하는 것이 잘 된 독서의 요령이다. 그 방법을 조금 나누어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목을 들 수 있다. 첫째 오래 읽고 자세히 보아 완숙하게 이해한다. 둘째 읽은 내용을 몸과 마음으로 체인한다. 셋째 읽은 내용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한다. 이같은 독서는 “이치를 깊이 궁구하는 일(窮理)은 실천(踐理)에서 체험해야 비로소 참으로 아는 것이 되고, 공경하는 것을 주로 하는 일(主敬)은 마음을 두 가지 세 가지로 분산하는 일이 없어야만 참으로 얻는 것(實得)이 될 것이다.”(문집 권14, 「답이숙현」)라 한 바와 같이, 진지(眞知)와 실득(實得)이 제대로 성취된 결과로 보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효과적인 독서를 위해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세목으로 나누어 살펴 보기로 한다.

3-2-2. 오랜 시간 반복해서 읽어 익숙해지도록 해야 책의 맛을 알 수 있다.

백담 구봉령은 “무릇 독서는 범독(泛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백담집』 권8, 35쪽, 「寄忠胤書」)고 말한 바 있다. ‘범독’이란 ‘정독(精讀)’의 상대어이다. 퇴계도 “고인들은 독서할 때에 정숙(精熟)을 귀하게 여기었지 빨리 읽어 금방 끝마치는 것을 숭상하지 않았다.”, “무릇 독서할 때에는 열심히 읽어 난숙한 경지(勤苦爛熟)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최상이다.”(문집 권35, 「답이굉중」)고 말하여 정독과 숙독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한 퇴계의 언급은 「언행록」에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다. 즉 “알고 난 뒤에 또 거기에 자세하고 익숙해질 공부를 더한 다음 에라야 비로소 마음에 간직할 수 있으며 또 흐뭇한 맛도 있을 것이다.”(「언행록」, 김성일록)라 한 예와 같은 것이 그러하다.

### 3-2-3. 빨리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생각을 여유있게 하라

퇴계는 독서의 과정을 엄하게 세워서 하되 생각은 여유있게 하라고 하면서 “이른바 엄하게 세운다는 것은 많은 것을 힘쓰지 않는다 함이니 능력을 헤아려 과정을 세워서 삼가 지켜 나간다는 뜻이고, 이른바 여유있게 붙인다는 것은 일정한 방향도 없이 되는 대로(悠悠泛泛) 한다는 것이 아니요, 마음을 비워 뜻을 찬찬히 음미해서(虛心玩繹) 촉급함이 없다는 뜻이다.(『증보퇴계전서』 제2책, 「答許美叔問目」)”고 했다. 이렇듯 퇴계는 촉급한 마음자세가 독서에 해가 됨을 지적하였다. 즉 촉급함을 제어하는 방법의 하나로 읽는이의 역량에 맞춘 ‘엄격한 과정의 수립’이 요구된 셈이다.

‘촉급한 마음’은 결국 많은 양을 빠른 시간에 독파하고자 하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생기기 마련이다. 그래서 퇴계는 늘 ‘빨리 이루고자 하는(欲速)’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욕속’하게 되면 자연히 ‘이미 독서한 것을 다시 익힐(濫故)’ 여유가 없게 되고, 독서의 정숙도(精熟度)도 떨어지기 때문이다.(『증보퇴계전서』 제2책, 「答金惇敘」)

### 3-2-4. 읽다가 막히면 마음을 수고롭게 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생각하라

퇴계는 독서에 있어서도 지경(持敬)공부가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 퇴계학단의 독서론이 지닌 특징을 한 마디로 말하라면 아마도 경(敬)을 기반으로 전개된 독서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퇴계가 “진실로 능히 지경(持敬)하는 방도를 안다면 이치가 밝아져서 마음이 안정되어

그러서 격물(格物)하면 물이 능히 나의 살핌에 빠져 나갈 수 없고 그것으로써 일에 응하면 일이 능히 마음의 누가 되지 않는다.”고 한 말은 독서론과 서로 관련되는 면이 있다. 궁리하기 위해 독서가 존재하니 만큼 ‘지경하는 방도를 알면 그 이치가 밝아 진다’는 것이고 독서가 또한 ‘격물’의 ‘물’에 해당하므로 ‘지경하면 독서가 나의 살핌에서 빠져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을 너무 괴롭히어 피곤하게 하는 것은 ‘지경’하는 방도가 아니다. 그래서 퇴계는 “책을 볼 적에는 마음을 수고롭히는(勞心) 데까지는 이르지 말고, 많이 보는 것은 절대로 금물이다. 다만 뜻에 따라 그 의미를 기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오직 뜻을 둔(着意) 것도 아니며 뜻을 두지 않은 것도 아닌 사이에 잘 살피고 관리하여 잊지 말도록(勿忘) 하여야 한다. (공을) 쌓음이 오래 되면 저절로 자세히 이해되어 얻는 것이 있을 것이며 너무 집착하거나 (마음을 거기에) 속박하여 그 빠른 효과를 취하려 해서는 더욱 안된다.”(『증보퇴계전서』 제1책, 「答南時甫別幅」)고 하여, 지나친 조바심이나 또한 지나친 집착을 버리라고 했다. 마음을 너무 수고롭게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병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휴양이 필요하다. 백담 구봉령이 아들에게 “밤에는 독서하지 말고 정기를 보양하기를 힘써라. 비록 시서(詩書)를 읽더라도 전에 익숙했던 부분을 두루 보아도 무방하다. 시가와 같은 것은 풍영할 즈음에 정신을 풀어서 펴 주나니 도움되는 바가 없지 않을 것이다. 나도 이로 부터 이미 많이 힘을 얻었느니라.”(『백담집』 권8, 46쪽, 「답성운서」)고 말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휴양의 필요성을 퇴계도 말한 바 있거니와 휴양이 “학자로 하여금 태만방사(怠慢放肆)함에 흘러가게 하려는 것을 이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마음을 비우고 뜻을 음미하여 성정을 기쁘고 알맞게 하고 답답함을 풀어내어 기체(氣體)를 조화롭게 할 따름이다.”라 하고, “아마 부앙고면(俯仰顧盼)하는 사이와 우유함영(優游涵泳)하는 사이에 전에 신고(辛苦)했으나 얻지 못했던 것이 또한 왕왕 그 저절로 눈과 마음 사이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증보

퇴계전서』 제2책, 「답이평숙」)고 하여 휴양이 전혀 독서를 폐한 것이 아닌 독서의 한 단계임을 말하였다.

### 3-2-5. 저자에게 겸손하고 엄숙한 마음자세를 지녀야 한다.

퇴계는 “성현을 높이고 사모해서 존경하기를 마치 신명이 머리 위에 있는 듯하였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그 이름을 피하고 아무개라 일컬어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었다.”(「언행록」, 「독서」, 김성일록)고 하며, 또한 “한 번도 기왕있는 글자를 함부로 지우거나 고치지 않고 그 글줄 위애다가 주를 붙이기를 ‘아무 글자는 마땅히 아무 글자로 해야 하지 않을까.’”(「언행록」, 「독서」, 김성일록)하고 말했다 한다. 그만큼 경건한 마음으로 독서에 임했던 것이다. 백담 구봉령도 말하기를 “독서에는 스스로 그 법도가 있으니 먼저 모름지기 마음을 가지런히 하고 생각을 씻어내어 책상을 마주하고 책을 펴기를 마치 옛 성현이 자리에 앉아 있고 신명이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하며 엄한 사우가 좌우에 있는 것처럼 하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경건성이 성현의 글에 대해 바쳐지고 있기에 퇴계는 성현의 글을 읽고 비판하기 보다는 그에 앞서 믿음으로 행할 것을 권하게 된다. “성현이 어찌 알기 어렵고 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를 속이겠는가? 성현의 말을 더욱 믿어서 딴 생각 없이 간절히 찾으면 장차 얻는 곳이 있을 것이다.”(「언행록」, 김부륜록)라거나 “어찌 성현의 말씀 가운데 나의 의견과 같은 것은 취하고 같지 않은 것은 억지로 같다고 여기거나 혹은 배척하여 그르다고 여길 수 있겠는가? 만약 이같이 한다면 비록 당세에는 온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나와 시비를 대항할 수 없게 한다 해도 천만세 뒤에 어찌 성현이 나와서 나의 흠을 지적하고 나의 숨은 병통을 간파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군자가 급급하게 뜻을 겸손히 하고 말을 살피며(遜志察言), 의를 행하고 선을 따라(服義從善), 감히 일시적으로 한 사람을 이기기를 계획할 수 없는 이유이다.”(문집 권16, 「답기명언후론」)라고 한 것이 바로 그 같은 사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한편 퇴계는 “선현들의 저술이라도 의리가 크게 어긋나고 틀려서 후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라면 논변(論辨)해서 바른 데로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선현에 대해서는 경건성의 정도가 성인보다 덜하기에 논변이 가능하다고 본 것 같다. 그러나 “매양 선유의 설에서 반드시 먼저 그 옳지 못한 곳을 찾아 힘써 깎아 내리고 배척하는 것”(문집 권14, 「答李叔獻」)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여전히 저자의 말을 순숙하게 이해하고 따르는 데 역점을 두었다는 증거이다. 퇴계의 이와 같은 생각은 「심무체용변 心無體用辨」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되고 있다.

성현의 글은 용이하게 읽을 수 없고 의리는 정미하여 쉽게 알아낼 수 없으며 서로 전하는宗旨(宗旨)를 경솔히 고칠 것이 아니고 이론을 세워 남을 깨우치는 것도 경솔히 발할 것이 아니며, 학문을 하는 데는 고기(高奇)하고 현묘(玄妙)한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마땅히 본분명리(本分名理)에 의해 아주 가깝고 평범하며 명백한 공부를 하여 연구와 체험을 오래 쌓으면 자연히 날이 갈수록 고심하고 원대하여 끝이 없는 곳을 볼 수 있을 것이니 그리해야만 옳게 얻는 것이 된다.(문집 권41, 「心無體用辨」)

### 3-2-6. 해설서에 치중하지 말고 본문에 충실하라

퇴계는 “경서의 해석을 너무 잘게 팜으로써 틀림이 많아 도리어 경서의 본뜻을 잃었기 때문에 뒤에 오는 학자들을 가르침이 많다.”(「언행통술」)고 말함으로써 주석서의 폐단을 지적하였다. 그래서 일찍이 간재 이덕홍이 잔 주(細註)를 다 보는 것을 병통으로 여기면서 말하기를 “마치 골짜기에 오르는 안개와 같고, 물결에 모래를 흘리는 것 같은 말이다. 그대는 반성하라.”(「언행록」, 이덕홍록)고 하였던 것이다. 오히려 퇴계는 “글을 읽거든 구태여 별다른 뜻을 깊이 구하려 하지 말고 다만 본문 위에 나타나 있는 뜻만 구할 뿐이다.”(「언행록」, 김부륜록)라고 하여 본문에 충실한 독서를 권하였다.

서애 유성룡도 그의 「독서법」에서 말하기를 “무릇 독서할 때는 먼저

주해를 보아서 안된다. 또한 경문을 반복해서 자세히 음미하여 스스로 새로운 의미(新意)가 생기기를 기다렸다가 문득 주해로써 참조하면 경의 의미가 밝아질 것이요, 다른 학설에 가리운 바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먼저 주해를 본다면 그 설이 나의 가슴 가운데 빗겨질려 있어 스스로 끝내 새로운 의미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서애집』 권15, 「讀書法」)라 하여 본문을 통한 의미의 자득을 강조하고 있다.

### 3-2-7. 생각하면서 독서하라

퇴계는 “낮에 읽은 것은 밤에 반드시 궁구해야 한다.”(『언행록』, 김성일록)고 해서 늘 생각하는 독서가 중요함을 말하였다. 생각이란 무엇인가? 퇴계는 “마음에서 구하여 체험을 통해 깨닫는 것”(문집 권6, 「戊辰六條疏」)이라고 하였다. 서애 유성룡도 “성현의 학문은 오로지 생각함(思)을 주로 삼는다.”고 하면서 “생각하지 않으면 구이지학(口耳之學)이니 아무리 많다 해도 무엇하겠는가? 만일 어떤 사람이 입으로는 오거서(五車書)를 외우나 그 의미를 물으면 깜깜하게 아는 것이 없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다.”(『서애집』 권15, 「學以思爲主」)고 말한 바 있다. 이 밖에도 퇴계는 암송의 필요성을 말했는가 하면 성리서의 경우 계통적인 독서가 요구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가 퇴계학단의 책읽기에서 주목할 것은 독서에 임하는 경건성·엄격성이다. 더우기 유교경전에 대해서는 신뢰가 깊었던 만큼 일호의 의심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투항적 자세가 눈에 띈다. 책의 내용을 믿고 따르는 면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지만 저자와 맞서기에 있어서는 매우 소극적인 느낌을 준다. 아마 이는 유교경전이나 성리서의 위력, 즉 논리의 엄밀성에 백기를 든 결과로 보인다. 거의 종교적인 묵수의 단계를 연상케 할 정도로 퇴계는 책의 충실한 증으로 복무하기를 택한 것이다. 책의 충실한 비판자가 아니라 충실한 해설자로 남기를 원했는지도 모른다. 충실한 해설자는 오히려 저자를 도와서 저

자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보이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점에서 양명학이나 노장·불학과 관계되는 책이나 소설류와 같은 잡서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병기를 들고 나서서 곧잘 공격적이 되고 만다. 퇴계가 이러한 류의 책을 보았다면, 아마 그것은 책이나 저자의 부당함에 대항하여 자기논리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 IV. 퇴계학단의 책 읽기가 오늘에 주는 의미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면 퇴계학단의 독서는 반성적 독서이며 분석적 독서에 해당한다. 반성적이란 말의 밑바탕에는 현실에서의 실천이 깔려 있고, 분석적이라 말의 이면에는 논리가 숨어 있다. 비록 사변이 위주가 된 논리나 실천일지라도 당시의 현실에서는 체득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정보(책)의 양보다는 질을 중시하였고, 넓게 읽기 보다는 깊이 읽기가 권장되었다. 또한 더우기 그 정보의 버리가 되는 경전을 난숙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들이 우리가 16세기 퇴계학단의 책읽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홍수의 물결속에 살아가고 있다. 과연 어느 누가 자신있게 이러한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에 따라 우리의 책읽기도 막읽기와 닳치는대로 읽기에 피곤해져 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머리와 가슴이 따르지 않는 눈으로만 하는 독서, 즉 감각적 독서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대중매체 특히 영상매체나 전파매체가 찰나성과 쾌락성을 더욱 부추기고 있기에 우리의 책읽기는 더욱 주눅이 들어가는 형편에 있다.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읽어 보지도 않고 선전광고의 반복세례를 받고 나서야 책을 받아들이는 오늘이다. 많은 이들이 부분적으로 강요된 독서를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흔히들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말은 곧잘 하면서도 ‘정독해야 한다’, ‘마



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 이는 드물다. 그 뿐 아니라 독서도 하나의 실천행위라면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퇴계가 ‘익숙해지도록 시간을 두고 반복해서 읽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바로 그 읽은 것을 체인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었다.

여기서 독서의 실천성이 하나의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다. 흥미에서 그치는 독서는 실천성을 논의할 수 없다. 예컨대 퇴계가 그토록 ‘읽어서는 안될 책’이라고 했던 소설·잡서류가 독서계를 지배하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실천성이 강조되는 독서일 때, 독서의 경건성·진지성이 함께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과 퇴계의 시대가 갖는 거리일 것이다. 책의 종류가 다양해지면 한 가지 책에 대한 집중력이 감소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많은 양의 책을 빨리 읽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책을 골라 집중적으로 읽으면 된다. 이렇게 한 가지 책을 여유를 가지고 꼼꼼히 읽어 나가면 마음의 긴장도 덜어질 것이니 정신건강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자신의 삶 속에서 곰씹어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면 더욱 행동하는 지식으로 독서가 작용할 것이 틀림없다.

역사는 독서의 공간이 확대되어 가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식자층의 증가와 새로운 도서의 유입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16세기 퇴계학단이 외쳤던 ‘위기지학’에 기초한 책읽기는 임진·병자 양대 전란을 거치면서 새로운 선회를 보게 된다. 물론 기왕의 보수적인 독서행태를 제외하고 논한다면 말이다. 18세기에 오면 우리는 이른바 실학과 학자들을 만날 수 있거니와 이들의 글읽기는 분명 전대의 그것과 다름을 감지하게 된다. 경세치용과 이용후생을 위한 지식과 방법의 모색을 위한 독서가 권장되고 있음이 그것이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남을 위하는 학문’이 추구되어 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실학자들이 전혀 성리학을 반대했거나 익히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성호나 다산의 예에서 보듯이 퇴계의 ‘위기지학’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면

도 적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아무리 우국애민하는 사상이라 할지라도 위기지학의 성취 위에서 만이 진정한 의미를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퇴계학단의 책읽기를 보면서 오늘날 다시금 음미해야 할 부분이라고 믿는다.